

## 윤애영의 비밀정원 ( Secret Garden )

인위적인 야광을 발하는 정원이 거대한 어두운 정원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활짝 핀 아몬드 나무가 자리를 하고 있다. 나무 가지 위에는 흐르는 물위에서 공중 부양하는 벌거벗은 작가의 비디오 프로젝션이 투명한 스크린들에서 방영되고 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돌풍과 잘 어우러진다. 방문객은 비디오 프로젝션으로 인공 꽃이 만발하는 정원의 오솔길을 따라 걷는다. --- Olesya Turkina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윤애영에 의해 전시된 이번 멀티미디어 설치는 2002년 11월13일부터 2003년 1월15일까지 러시아 국립미술관 Marble Palace 전시관에서 열리게 된다. 윤애영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젊은 비디오 작가중의 한 명이다. 그녀는 파리, 바로셀로나, 런던, 마드리드에서 개인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파리의 FIAC, 마드리드의 ARCO, 한국의 광주비엔날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비엔날에 참석을 하고 있다. 그녀는 1990년 초 비디오작가 개척자로 경험을 쌓았던 백남준, Vito Acconci와 이들을 뒤이은 비디오 낭만 작가 Bill Viola, Tony Oursler와 같은 작가들의 세대에 속해있다.

윤애영은 은유적으로 그녀의 설치 "비원"을 꿈이라고 부른다. "긴 나의 꿈속에서 나는 물고기와 같이 헤엄을 치고 새와 같이 구름 안에서 날고..... 나의 영혼은 무엇을 만나려는지...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지... 모르는 채 바람과 함께 비상한다. "정원"은 나의 꿈의 표현이고 나무는 나의 영혼의 이미지이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정원"은 꿈이자 환상의 세계로 여기서는 일상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 전체공간은 비디오 프로젝션의 섭광에 의하여 리드미컬하게 분리되어 있고 더구나 "블랙나이트"의 푸른빛에 의해 넘쳐흐르고 있다. 여기에는 평상적인 넓이라던가 정상적인 것들의 법칙이 없다. 나무는 벌거벗은 사람의 이미지 형태로 열매를 맺고 있고 비디오 영상이 닿는 공간들은 꽃들 사이에서 포근하게 어스레한 빛을 발하면서 작가의 꿈들을 소생시키고 있다. 관람자는 갑자기 불가사이한 나라 또는 꿈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여행자와 같은 기분이 된다. 여기에서는 물체들이 자리를 바꾸고, 여기서는 정원이 관람자의 혼을 양성하는 영혼을 품고 있다. 이 설치에 대하여 말할 때 윤은 장자(Choan-tsu)의 유명한 꿈을 상기한다. Choan-tsu가 잠을 자면서 사람에게 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나비가 사람에게 대하여 꿈을 꾸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이다.

관람자와 작가의 공유된 경험은 "실지" 물체들과 환영 같은 비디오 이미지와 소리들로 채워진 신비로운 공간에서 융합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작가의 인생경험을 반영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 여행자의 이미지는 Krishnamurthy 철학에 대한 윤애영의 열정을 반영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때에 끝없는 여행"을 한다는 작가의 은유적인 개념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와 꽃들 같은 실체적인 물체들은 논리와 의식의 세계, 물질세계인 "지구"로 작가를 돌려보낸다. 물과 바람 같은 자연적인 소리는 윤애영에 있어서는 "꿈의 정도 (royal road of dreams-Sigmund Freud의 말에서 인용)"를 따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무아의 세계를 상징한다. 윤애영의 멀티미디어 설치 "비원"은 작가에 의해서 다시 또다시 소생하는 과거의 추억을 담고 관람자에 의하여 경험되는 현재와 연결하여 향후 우리들의 꿈에서 아마도 다시 짝 틀 미래의 씨들을 운반한다.

Olesya Turkina  
Curator at The State Russian Museum